

## 초 록

제목 : 국내 가속기질량분석의 어제와 오늘, 그리고 내일

연사 : 윤 민영 (아나스연구소 소장)

국내의 가속기질량분석은 1994년 8월에 전국 48개 기관 및 대학 학과의 교수와 연구원 92명이 참가한 이온빔 장치 구입 추진위원회에서 도입을 추진하여 교육부의 11차 IBRD 사업에 의해 1999년에 서울대학교 기초과학 공동기기에 3MV 정전가속기가 도입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. 이 가속기는 도입 계획 당시부터 다양한 학제간 연구에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었으며,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. 성공적인 연구 활용의 결과 국내 다른 연구기관에 추가적인 정전가속기 도입이 이루어져 현재에는 서울대학교 외에 지질자원연구원(KIGAM), 한국과학기술원(KIST)에 각각 1기 씩 총 3기의 질량분석 정전가속기가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다.

국내외의 사정이 현격하게 변화됨에 따라, 애초 도입 계획 당시의 예측에서 벗어난 분야도 있으며,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분야도 있다. 현재 다소간 침체된 질량분석 정전가속기가 새로운 비전으로 장기적인 운영 목표를 재설정하는 계기를 삼을 수 있기를 바라며, 이 세미나를 통해 이러한 관련 학문분야들의 활용 사례와 장래 활용 가능성들을 되짚어보고자 한다.